online © ML Comm
心性硏究 25 : (2), 2010, 163~193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박 영 선*

국 문 초 록

한국민담 <내 복에 산다>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석하였다. <내 복에 산다>는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채집되는 민담으로서 삼공본풀이, 무왕설화 등 여러 이야기에서 공통된 주제들이 발견된다. 누구 복에 사는가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내 복에 산다고 대답한 셋째 딸은 쫓겨나 숯구이 총각과 결혼하게 되고 산중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후 아버지를 다시 만나 잘 모시게 된다. 분석심리학에서는 민담을 무의식의 원형적 작용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집단의식을 보상하여 전체성을 이루려는 목적을 향해 이야기가 진행된다. 본 민담은 부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열등한 것과 결합하는 고통의 체험과 무의식적 세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전 인격적 실현을 이뤄가는 한 여성의 자기실현의 이야기인 동시에 경직된 집단의식이 무의식의 작용으로 변화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중심 단어 : 민담 · 내 복에 산다 · 분석 심리학.

들어가는 말

민족마다 나라마다 많은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놀이이며 교육이고 의례의 일부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어린이들은 긴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아 할머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고 웃고 무서

접수일 : 2010년 7월 15일 / 심사완료 : 2010년 11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0일
*한국외환은행 부속의원

워하면서 모르는 세상을 향해 상상력을 펼치기도 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기도 한다. 요즈음엔 잘 구성된 그림책이나 매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변함없이 아이들의 정신의 놀이터로서 한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 중요한 토양으로 작용해왔다. 인류 전체의 정신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의식의 확대와 변화는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속에 그대로 투영된다. 사고나 판단, 꿈과 동경,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서 비롯되었을-꿈이나 정신적 체험의 형태로-신비스럽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때로 약간의 변화와 수정을 겪으면서 수세기를 흐르도록 생명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민담이라고 부른다. 민담은 정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원형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자라고 꽃 피어난 양식들이므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표현들로서 나타나지만 한편 하나의 근원이 지향하는 어느 정도 동일한 목적 의미를 드러낸다. 개성화를 향한 방향성이 그것이다. 특정 이미지들의 선택과 다양한 이야기 진행은 결국 한 인간과 집단 전체의 개성화를 의도한다. 문학적, 혹은 사회문화적 관점 등 여러 면에서 민담을 고찰하고 조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분석심리학은 민담이 인간의 전 인격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해 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인간 존재 자체에 개성화의 충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신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올라온 내면의 드라마가 개성화의 목적에 일치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체과정은 자기(Self)의 지휘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옛날이야기'에는 신화, 전설, 민담(Märchen) 등의 형태가 있다. M.L. von Franz는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담이라고 보았다. 민담은 원형적 기본 구조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야기의 핵이므로 시대나 나라와 민족 등 모든 범주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핵이 지역에 국한되어 뿌리내리면 전설이 되고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결부되어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정립되어 신화가 된다. Von Franz 는 민담의 내용이 집단의식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때 유사한 신화를 참고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1)]

1)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n Fairy Tales,*** Shambala, Boston, pp 27-28.

어떤 이야기가 수 백 년 혹은 수 천 년 이상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하고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느 틈엔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민담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감동을 느끼고 어떤 면에서든 정신에 활기를 경험한다는 뜻일 것이다. 과학과 이성이 진리인 양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신화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옛날이야기, 동화, 공상과학만화 등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며 옛날이야기라고 하면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사람들의 허황된 상상 정도로 여기기도 했었다. 의식을 발달시킨, 합리와 이성의 세례를 받은 성인은 그런 이야기들에 공감할 수 없는 듯 보였고, 무의식에 좀 더 가까운 어린이와 정확하고 타산적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 비껴 선 노인들이 비합리적인 무의식 세계에 좀 더 쉽게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문화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역시 인간은 무의식적인 토대와 결별한 채 살아갈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신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첨단 기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에까지 신화적 상징들이 만연해 있음을 본다.

신화와 민담을 읽거나 문화 콘텐츠로 향유한다 해도 우리가 현재에 그것을 통해 받는 감흥은 이야기가 비롯될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 경험과는 그 강도에 있어서 사뭇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화 해석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Von Franz 는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이란 현대의 우리가 민담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다.[2] 고문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주석을 다는 것처럼 민담에 나오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확충하는 작업을 통해서 더욱 풍요롭고 생생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객관적이고 지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의 감정이 자유롭게 개입되는 정서적 체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정서적인 참여를 동반하는 민담 해석 작업은, 신비롭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사람들이 원형의 층과 화목하게 되고 생기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내적 체험과 감동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2)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45.

필자가 처음 이 민담을 읽었을 때 느낀 감정은 통쾌함 이었다. 가슴에 얹혀 있던 해묵은 뭔가가 시원하게 뚫리고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러한 감정은 필자가 여성이란 사실에서 기인할 것이며 이 땅의 많은 여성들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사실 오래 전부터 민담 논문의 대상으로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있었다. 수년 전 두루미 상징에 대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읽은 한 일본 민담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한 삶의 상황과 정신은 같은 이야기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감흥을 일으키지 않았다. 대신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내 복에 산다>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민담 <내 복에 산다>와 유화들

민담 <내 복에 산다>는 한국의 전 지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얀마, 대만, 태국 등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3] 또 제주도에서 지금도 무가로 불려지고 있는 신화 삼공본풀이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무왕설화에 매우 유사한 모티브들이 포함되어 있다. 황인덕은 잡보장경(雜寶藏經)에 수록된 선광 공주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민담의 형성과 전승에 불전설화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는데[4] 두 이야기의 전체 구조가 거의 동일해 놀라울 정도이다. 불전설화, 무가, 민담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지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는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전승 과정 중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란 점은 추측할 수 있으며, 선후의 문제를 떠나서 이 주제가 오래 전부터 널리 분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민담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주제들을 Stith Thompson의 주제 색인에서 찾을 때, 아버지가 벌로 딸을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보내는 주제(T.69.5)와 곤궁해진 아버지가 내쫓은 딸에게 구걸하는 주제(L432.2) 등이 있었다.

대상 민담과 함께 삼공본풀이와 무왕설화의 줄거리를 각각 요약해 보겠다.[5]

3) 현승환 (1998) : "내 복에 산다계 설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설화문학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pp837-841.

4) 황인덕 (1988) : "<내 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pp115-119.

1. 내 복에 산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림은 부자인데 아들이 없고 시집갈 나이가 된 딸만 삼형제를 두고 있었다. 하루는 그 부자가 심심하던 차에 큰 딸을 불러서 물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살지?"

"아이, 누구 복은요. 아버지 복으로 먹고살지요."

"그래, 됐다."

부자는 다시 둘째 딸을 불렀다.

"얘야,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살지?"

"아버지 복으로 먹고살지 누구 복이겠어요."

"오냐, 알았다."

부자는 끝으로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을 불렀다.

"아가, 너는 누구 복으로 먹고살지?"

그런데 막내딸은, "아이 그거야 당연히 내 복으로 먹고살지요."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그만 부자는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네 이년, 네 복으로 먹고 산다고? 알았다. 어디 네가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그 날은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다. 부자는 막내딸을 이끌고서 장으로 나갔다. 장판을 두루 살피다가 한구석에서 산중에 사는 숯구이 총각이 숯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리로 딸을 끌고 가서 더벅머리 숯구이 총각에게다 딸을 덜컥 내맡겨 버렸다.

"자. 이게 네 짝이다. 어디 얼마나 잘사는지 한번 살아 봐라."

막내딸은 그만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숯구이 총각하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막내딸은 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태연히 숯구이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길도 아닌 곳으로 한참을 올라가는데 옹색하기가 그지없었다. 사는 집이라는 게 비바람만 가린 조그만 오두막인데 곧게 누우면 발이 집 밖으로 나갈 지경이었다. 그 오두막에서 허리가 다 꼬부라진 노파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궁이에

5) 민담 <내 복에 산다>는 신동흔이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황금가지, 2003)을 인용했고 삼공본풀이와 무왕설화는 장주근 저 풀어 쓴 한국의 신화(집문당, 1998)에 소개된 내용을 기초로 요약하였다.

불을 때 밥을 하고 있었다.

막내딸은 기가 탁 막혔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러자 허리 꼬부라진 노파가 고개를 떨면서 말했다.

"아이고, 고운 색시가 어떻게 밥을 하나?"

"걱정 마세요. 그럭저럭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 먹고서 치우고 나니 날이 어두워졌다. 잠을 자야 하는데 방이 달랑 하나뿐이었다. 숯구이 총각이 여자한테 말했다.

"색시는 어머니랑 방에서 주무시구려. 난 부엌에서 자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방에서 자야지요. 제가 부엌에서 잘 테니 걱정 마세요."

"꽃 같은 색시가 어떻게 부엌에서 주무시겠소. 방에서 주무시오."

그러자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것 없이 방에서 다 함께 자면 그만 아닙니까? 같이 잡시다."

그래서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숯구이 총각은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처녀한테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어느새 콜콜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숯구이는 숯을 굽기 위해 숯막으로 올라가고 막내딸과 노파는 집에 남았다. 막내딸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빨래까지 하고 보니 어느새 점심밥을 내갈 시간이 되었다. 노파가 밥고리를 이려고 하자 막내딸이 나서서 빼앗았다.

"노인네가 어찌 그걸 이고 가신단 말입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막내딸은 숯막에 이르러 밥고리를 내려놓고서 숯가마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가마 아궁이에 양쪽으로 기둥을 세우고 이맛돌을 올려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 뭐가 좀 이상했다. 그을음이 덮여 거무스름한 속으로 누런 빛이 우러나 보이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겨서 그을음을 긁어내고서 보니 그 이맛돌은 황금이 분명했다.

'아이 참, 눈앞에 있는 황금을 못 알아보고서 저 고생을 하다니!'

막내딸은 밥을 다 먹고서 배를 문지르고 있는 숯구이한테 가서 숯가마를 가리켰다.

"숯은 그냥 두고 저 아궁이 이맛돌을 빼서 장에 갖다 파세요."

"아니 그걸 빼다니! 내가 온 산을 뒤져서 겨우 마음에 드는 걸 찾아낸 건데…"

"그냥 믿고서 내 말대로 하세요. 누가 얼마냐고 묻거든 그냥 제값을 달라고만 하세요."

숯구이는 예쁜 색시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이맛돌을 빼서 지게에 짊어지고 장에 나갔다. 장에다 돌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값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숯구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돌멩이를 사간담."

그럭저럭 때가 늦어서 숯구이가 돌을 치우려고 하는데 어떤 노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여보게, 그 물건 팔 건가?"

"아, 팔 거니까 내놓았겠지요."

"그래 값이 얼만가?"

"따로 값이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그냥 제값을 주시구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알았네. 물건을 지고서 따라오게."

노인의 집에 이르러 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노인이 돌을 내려놓게 하고서 값을 쳐 주는데 숯구이는 눈이 아주 동그래졌다. 궤짝에 가득 들어 있는 돈을 통째로 실어 주었으나 말이다.

"이거면 되겠지?"

"그저 제값만…"

그러자 노인은 벽장에 숨겨두었던 돈 꿰미 하나 더 꺼내서 얹어 주었다.

"이 정도면 값이 될 게야."

숯구이 총각은 돈을 지게에 하나 가득 짊어진 채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막내딸은 별로 많이 놀라지도 않고서 돈을 헤아렸다.

"다행히 임자를 잘 만났군요. 우리 복이에요."

다음 날, 세 식구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산기슭으로 내려와 넓은 땅을 샀다. 그리고 일류 목수를 동원해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다. 집 안에는 귀한 살림 도구와 의복, 먹을거리를 두루 갖추었다. 그런 다음 막내딸은 숯구이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삼 년 만에 숯구

이는 번듯한 선비로 탈바꿈했다.

막내딸은 문득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냈더니 벌써 집을 팔고 떠나갔다고 하는 소식이 돌아왔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집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공연히 쓸데없는 유세를 하시더니…'

막내딸은 남편한테 청하여 성대하게 거지 잔치를 열었다. 나라 안의 모든 거지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잔치였다. 막내딸이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레째 되는 날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지 중에도 상거지 차림으로 잔치에 찾아들었다.

거지들이 여러 줄로 줄을 서서 밥상을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두 사람 앞에서 음식이 뚝 끊겼다. 다시 다른 줄에 가서 서니 이번에도 그 앞에서 음식이 뚝 끊겼다. 그러기를 세 번이나 하자 두 사람은 그만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우리는 얻어먹을 복도 없으니 이것이 웬일인고."

그러자 막내딸이 나와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의 소매를 이끌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빠짐없이 대접하는 터인데 이게 웬 울음이란 말이오. 특별히 한 상을 차려 줄 테니 들어오시오."

방 안에는 특별히 차린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음식을 보자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집어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막내딸이 눈물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어찌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신단 말이오!"

그 말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안주인을 바라보았다. 살펴보니 정말로 옛날에 버리다시피 숯구이한테 내맡겼던 막내딸이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은 딸의 손을 잡은 채 말을 못 잇고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세요.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함께 살아요."

막내딸은 두 사람을 이끌고 나와 여기저기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대문간에 이르자 막내딸이 말했다.

"이 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막내딸은 대문을 슬쩍 밀어서 닫았다. 그랬더니 그 문에서, "내 보옥…"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다시 문을 빠르게 열었다 닫았다 하니, "내복 내복, 내복 내복!"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만 감탄을 해서 너털웃음을 웃고 말았다.

"그래, 복이로구나. 네 복이야."

그 후 막내딸은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를 함께 모시고 두 언니네 살림까지 돌보면서 아들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2. 삼공본풀이[6]

옛날에 남자 거지와 여자 거지가 만나 부부가 되었다. 열심히 품팔이를 하여 그럭저럭 먹고 살던 거지부부에게 딸이 태어나자 동네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먹이고 키우며 은장아기라 불렀다. 두 번째 딸이 태어나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었으나 성의는 줄어 놋그릇에 밥을 해주고 키워 놋장아기라 이름을 지었다. 다시 셋째 딸이 태어나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밥을 담아다 키워 주어 감은장아기라 이름지었다.

세 딸이 태어난 후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부부는 부자가 되었고 가랑비가 내리는 날 딸들을 불러서 누구 덕에 잘 사느냐고 묻는다. 큰 딸과 둘째딸은 하늘님, 지하님, 부모님 덕에 산다고 대답하나 막내딸은 하늘님, 지하님, 부모님 덕도 있지만 내 배꼽 밑의 선 덕으로 잘 산다고 대답한다. 부모는 막내를 쫓아내었고, 이내 다시 불러들이려 하나 언니들이 시기하여 훼방하자 감은장아기는 두 언니를 청지네와 버섯으로 만들어 버린다.

감은장 아기는 아들 셋이 있는 가난한 집에 가게 되고 막내인 마퉁이와 혼인하는데 마퉁이가 마 파던 구덩이에 금덩이 은덩이가 있어 부자가 된다.

막내딸이 나간 후 부모는 봉사가 되고 거지가 되었다. 감은장아기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여 거지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찾고 그들은 눈을 뜬다.

3. 무왕설화

서동은 백제 무왕의 소년시절 이름이다. 지혜로웠던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

6) 삼공본풀이는 큰 굿에서 올려지는 의례의 일부이다. 큰 굿은 3~4일 이상에 걸쳐서 모든 신격을 다 모시는 굿을 말한다. 본풀이란 신의 근본을 풀이하여 신의 내력이나 행적들을 찬양하는 서사무가를 말하며 삼공본풀이는 '전상'(전생의 업보)를 관장하는 삼공신의 신화를 가창하는 의례이다(장주근, 앞의 책, pp80-81).

째 딸 선화공주가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유인해 내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 이른바 '서동요'를 지어 어린이들에게 마를 주면서 부르게 함으로써 공주로 하여금 쫓겨나게 만든 것이다.

서동은 마를 캐는 일을 했는데, 선화공주가 왕궁에서 쫓겨날 때 왕비에게 받은 순금으로 살아가자고 했더니 서동은 그런 것은 자기가 마를 캐던 곳에 산더미같이 많다고 했다. 공주는 그것을 모아서 지명법사에게 부탁하여 신라의 궁중에 보낸다. 진평왕은 기뻐하며 서동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일로 서동은 인망을 얻게 되고 왕위에 오른다.

그 후 부부는 미륵사를 세우는데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서 이것을 도왔고 그 절이 지금도(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당시) 남아있다고 한다.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이 민담은 '누구 복에 사는가'고 묻는 아버지, '내 복에 산다'고 감히 대답하는 딸, 쫓겨남과 신랑을 만남,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후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등의 주제들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신화 삼공본풀이, 무왕설화 등과의 연관성, 그리고 선명한 주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민속학, 문학 분야에서 연구가 적잖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가부장적 체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여성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성이 부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보는 것이다.[7] 오랜 역사를 가진 구전 이야기로부터, 여성주의 관점에서 혹은 문학적 관점에서 신선한 영감을 길어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민담이 인간의 전체 인격의 실현을 향한 보편적인 무의식적 충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으로부터 심리학적인 해석과 고찰을 시도할 때 인격의 성장과 치유로 연결되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7) 김석배(1982) :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연구," ≪문학과 언어≫ 3, pp87-108. 김영희(2007) : "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 ≪온지논총≫ 18, pp379-427. 곽정식(1999) :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에 나타난 여성의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과학논총≫ 2, pp1-12.

1. 부자에게 딸 셋이 있었다.

지역별로 이야기의 설정에 있어 약간의 상이점을 보이지만 아버지는 주로 부자로 나오고 그 외에 양반, 정승, 대감 등도 있다. 재력, 권력이 있는 아버지들이다. 대부분의 이야기 시작부에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 민담에서도 보듯이 결말 부분에서는 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전승들이 일부 있으나, 이야기 서두에는 딸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나올 뿐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아 어머니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유력한 아버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 딸의 구도로 볼 때 딸들은 아버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위의 두 딸이 '아버지 복에 먹고 살지 누구 복에 먹고 살아요'하고 대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물음과 대답을 나누는 아버지와 딸들이 사는 집안을 상상해 보자. 아버지의 권위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이 견고하여 그의 말 한마디는 그 집의 법이며 원칙일 것이다. 그는 가끔 자녀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보이는 순종의 태도에서 자신이 충분히 존경받고 우러러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흐뭇해 할 것이다. 딸들은 착실하고 얌전하게 자라 절대로 눈에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고 안팎에서 칭찬을 받는 요조숙녀일 가능성이 높다. 그 시대의 집단이 인정하는 제도와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이 공간에서 독창적인 어떤 것, 새로운 이념이나 파격은 용납될 리 없다. 점잖게 행동해야 하므로 본능과 욕망, 솔직한 감정은 자주 억압되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이 집에는 어머니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성, 아니마가 결여된 전통적 집단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성적 요소가 지배적이므로 정신은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세 딸은 이 결손을 보상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아버지'의 아니마의 여러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딸들만으로는 이러한 치우침과 결손을 보상하기에 부족하다. 부성적 가치에 종속되고 있는 이 상황의 반전을 위해 상식과 인습을 뒤엎는 새로운 정신의 싹–이 민담에서는 셋째딸–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참으로 무겁고 거대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게 한 근원이며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과 도덕을 가르쳐주고 세상으로 나아가 개척하고 성취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존재

이다.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하고 힘 센 존재인 동시에 세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고 이기는 존재로서 두려움과 경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전통적인 아버지는 많은 변천을 겪어 현대의 아버지 상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로 담지하게 되었으나 과도기적 혼재는 아버지 스스로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혼란과 부적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실재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는 하지만, 더욱 근원적이고 막대한 영향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각인되어 있는, 인류의 수 천 년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침전된 아버지라는 개념의 틀, 부성 원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분석심리학의 견해이다. 융은 실제 아버지의 배후에 부성 원형이 있어 거기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의 비밀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는 마치 철새로 하여금 계절에 따라 이동하게 만드는 힘과 같다고 비유했다.[8] 계절이 바뀔 때 새가 어느 먼 나라로 옮겨가는 것은 새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 충동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삶에 있어 원형의 영향력은 유전적 혹은 운명이라고 할 만큼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부성 원형은 실제의 아버지와 연관되고 충돌하면서 개인의 삶을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정신 안에 부성 콤플렉스가 자리 잡는다. 아버지는 규칙, 윤리, 질서, 기존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는 여성들로 하여금 당시의 사회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편입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대로 사는 대신에 '적절해 보이는,' '남들이 인정하는'겉모습을 발달시키게 된다. 민담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에 순응하는, 권력자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휘하에 안주하는 인물 상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기존의 행동양식을 고수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많은 민담에서 늙은 왕에게 아들만 셋이 있는 설정이 자주 발견되고 아들들에게는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 민담에서는 아버지와 딸만 셋 있는 구조다. 신랑을 만나는 모티브가 출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다. '딸 셋을 거느린 아버지'는 흡사 아니마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 예민한 '아니마

8) Jung CG.(1948) :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CW 4, Freud and Psychoanalysi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321.

맨'('anima man')과 비슷하다. 주위 사람들이 늘 자기가 베푸는 은덕에 고마워하며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기대하는, 예민하며 쉽게 상처받는, 자기중심적인 독재자와 같다.

2. 셋째 딸이 '내 복으로 산다'고 대답하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자 던진 아버지의 질문에 큰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산다'는 '정답'을 말함으로써 아버지를 만족시키는데 반해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은 당돌하기 이를 데 없는 대답을 한다. 복종과 종속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가부장제라는 낡은 의식 체계와 개별적 존재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의식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해도 내 복으로 산다니! 오늘날 여성주의자들이라면 박수치며 환호할 대답이지만 옛날 어느 시대에, 아니 오늘이라 해도 이런 대답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딸의 이 같은 발언은 자아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무의식으로부터 분출된 원형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부성적인 것의 영향에 대해 무의식이 반기를 든 것이다. 어떤 측면이 지나치고 일방적이 되면 에난치오드로미를 통해 보상이 유도된다. 억눌리고 무시된 것은 어느 순간 큰 소리를 내며 경계선을 뚫고 터져 나오는데 셋째 딸의 대답은 이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 복에 사느냐고 묻는, 별로 자연스럽지 못한 아버지의 질문은,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인 동시에 부성적 권위아래서 삶이 진부해지고 활기 없음을 견디다 못한 여성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지금까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닐까. 무의식의 개입으로 인한 이같은 질문이 자기 인식의 계기를 촉발시킨 발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하필 왜 셋째 딸인가? 간혹 딸이 다섯이라고 구술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세 딸이 등장하며 어떤 경우든 막내라는 데는 예외가 없다. 민담에서 사건의 발단은 자주 셋째로부터 시작된다. 무왕설화에서 서동의 연모의 대상이 되는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로 등장하며,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구렁이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신랑을 얻는 것도 셋째 딸이다. 그림동화집에 나오는 노래하는 종달새에서 셋째 딸은 아버지의 가장 사

랑하는 딸로서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신랑을 찾을 때까지 기나긴 여행을 해야 했다.[9]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 아들이 세 명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왕위를 물려받거나, 진정한 신부감을 골라오는 데 성공하거나, 공주를 구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항상 셋째 아들이다. 이 이야기들에서 셋째는 막내로서 가장 어린 존재이다.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처럼 가부장사회의 딸로서 '가장 푸대접 받은 막내'라는 특징도 있다. 막내는 또한 민담에서 종종 바보로 등장한다. Von Franz는 민담에서의 세 번째 아들은 전체 구조에서는 네 번째 인물로서 원형적인 종교적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열등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인물은 인격의 소외된 부분인데 뒤에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근원적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 무의식적 전체성으로 가는 다리가 된다는 것이다.[10] 약한 부분,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새로운 인격의 싹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에서도 자녀가 여럿인 경우 맏이에게는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기대가 부어짐으로써 의무와 부담감을 느끼며 자신의 자연스런 성품과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비해 둘째 셋째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부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천성을 펼치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관찰하곤 한다. 민담의 셋째 딸도 부성의 권위와 통제 안에 자신을 가두는 두 언니와는 달리 인습의 틀을 깨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주장하여 미래를 여는 역할을 담당했다. 셋째 딸의 '내 복에 산다'는 선언은 심혼의 목소리이며, 새로운 태도, 새로운 인격, 변화로 이끄는 심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융이 꿈을 분석하면서 언급한 것인데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 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

> 우리 안에 있는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보기에는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너무나 어리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바로 그런 면들이 미래의 발전을 약속한다. 당신 안에서 이미 발달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미래가 없다. 그것은 이미 정점에 다다랐기 때

9) 그림형제 동화전집 I(김열규 역, 현대지성사, 1999) 에 수록된 이야기로 부성콤플렉스의 영향 아래 있던 여성의 구원을 그린 민담으로 볼 수 있다.

10) Von Franz ML, Hillman James(2006) : ***Lectures on Jung's*** Typology, Spring Pub. Inc, pp10-11.

문이다. 생명의 지속은 언제나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원한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자율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신들이며 데몬들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은 신이며 데몬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두려움, 감정, 우리 밖에 있는 작은 목소리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다. 모든 새로운 내용들은 처음에는 자율적인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있는 곳에서 그것은 그 사람이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그를 사로잡고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임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나중에 그것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야기되어지게 하는 심혼이 될 것이다.[11]

3. 셋째 딸이 쫓겨나 숯구이 총각에게 가다

셋째 딸은 아버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답을 함으로써 쫓겨난다. 장에 가서 숯구이 총각에게 딸을 주어버렸다고도 하고 그저 쫓겨나 산중을 헤매다가 불빛을 찾아 총각의 집에 들어간다고 구술되기도 한다. 안전하고 안락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호되지 않는 세계로 혼자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속해 있던 세계는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옷이며 낡은 부대이다. 그런데 셋째 딸이 자기 존재를 주장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긴 했지만 아직 '자신의 집'을 구축한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세계,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개별적 존재로서의 고유한 인격을 완성시켜야 할 과제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단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영웅 신화에서 영웅 아이는 필연적으로 버려짐을 겪는다. 버려짐의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Von Franz는 이 과정을 '내면에 있는 버려진 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는 것'이라고 했다.[12] 셋째 딸이 산 속에 있는 숯구이 총각의 오두막으로 가는 것은 멀리 떨어진 위험한 곳으로 가서 보물을 발견하는 영웅의 여정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험난한 모험을 떠나는 민담의 주인공에게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다. 주인공은 쫓겨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스스로 당당히 집을 나서기도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강릉시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셋째 딸이 비단옷을 싹 새로 해 갈아입고는 '내 복 내가 가지고 가지'하면서 쌀을 퍼가지고 숯장사를 따라 갔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에 대해 김석배는 막내딸이 잃어

11) Jung CG(1984) : ***Dream Analysis,*** Princeton Univ. Press, pp192-193.
12)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reface viii.

버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찾기 위해 떠난다는 점에서 탐색의 주인공이라 규정하면서, 민담의 주인공에게 탐색의 대상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절실한 것인 만큼 모험을 떠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머뭇거림이 없다고 했다.[13]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는 원형의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인간적인 감정 반응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전설과 달리 민담에서는 주인공이 감정에 휘둘림 없이 전형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들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형상 즉 추상적인 내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14] 두려움이나 분노 등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도식적인 존재로서 개성화에의 부름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이 민담의 셋째 딸 역시 집을 나서는 것과 비천한 숯구이 총각에게 가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 반응이나 망설임을 보이지 않는다.

예정된 신랑감은 숲 속에 '길도 아닌 곳으로 한참을 올라가'있는 오두막에서 노모를 모시고 숯을 구워 파는 가난한 총각이다. 주인공의 배경은 부자 아버지와 세 딸이 있는 부유한 가문인데 비해서 이 '다른 세계'는 홀어머니와 아들 한 명만 있는, 보통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난하고 누추한, 그러나 자연에 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곳이다. 부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격의 싹을 발견하여 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무의식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보물이 있는 장소인 것이다. 내 복에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복을 찾는 모험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어쩌면 무의식에서 올라온 충동에 순간적으로 팽창된 자아의 선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주인공의 자아의식은 무의식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성인식과도 같은 시험을 겪어야 한다. 자존심 강하고 얼굴도 고운 부잣집 막내딸이 누우면 발이 집 밖으로 나갈 지경으로 옹색하기 그지없는 오두막에서 밥을 짓고 집안을 치우고 빨래를 한다. 여성적인 일, '살림살이'는 부성 콤플렉스의 눈으로 보면 하찮고 시시한 허드렛일이지만 사람을 '살리는'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오두막에서 주인공은 이러한 측면의 여성성을 통합한다. 거부하지 않고 '버려진'상황에 충실함으로써 얻은 열매다. 민담에서 절망스런 가난과 비천, 시험과 시련은 주인공이 그러한 '버려짐'을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까지 계속된다.[15] 이부영은 '버림받음'의 고통은 자기실현의 기회이며 조건이라고 역설한다.[16] 그동안 자기를 지

13) 김석배(1982) : 앞의 논문, p91.
14) Von Franz ML(1996): 앞의 책, p17.

탱해 온 페르조나의 상실은 진정한 자신에 대한 통찰과 인격의 변환으로 이끌어갈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숯구이 총각은 어떤 자료에는 머슴으로 나오기도 한다. 가난하고 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그는 새로운 의식성의 담지자, 여성의 자기실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무의식의 내적 인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숯은 검고 생명이 없는 듯 보이지만 장차 벌겋게 달아올라 뜨겁고 강열한 불을 지필 흥미로운 소재이다. 숯구이 총각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나무를 하고 가마에 불을 피워 새까만 숯을 구워낸다. 힘들고 거친 노동이며 험하고 외로운 삶이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래 씨름한 후 사람들은 '가슴이 숯덩이가 되었다'고 표현한다.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느낄 때의 그 고통은 절망과 좌절, 극도의 무력감이 뒤섞인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힘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삶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겸손을 배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인격이 깊어지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숯구이는 의식의 눈으로는 높이 평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이나 그의 작업에는 고통을 넘어서서 활활 타오를 미래의 의식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부영은 이 민담에 나오는 숯구이에 대하여 "그는 무의식이다"라고 말한다. 빛을 간직하고 있으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마음, 그러나 그곳에서 "이승에 불을 가져다 줄 준비를 묵묵히 실행하고 있는 자,"여성의 마음 속에 살아있으되 밖에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혼 아니무스와 같은 것으로 여성의 자기실현을 돕는 무의식의 내적 인격에 비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17]

4. 숯가마에서 금을 발견하다

막내딸은 점심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숯막에 나갔다가 숯가마의 이맛돌이

15) 그림동화집에 나오는 '털북숭이 공주'는 짐승 털가죽을 두르고 아버지로부터 달아나는데, 왕의 부엌에서 땔감과 물을 나르고 불을 지피고 닭털을 뜯고 재를 치우는 등 궂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왕과 결혼한다. 같은 책의 '지빠귀부리 왕'에 나오는 공주는 구혼자들을 골리고 비웃다가 아버지로부터 쫓겨나 거지의 아내가 되었는데 불 피우고 요리하고 베 짜는 등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다시 한 번 쫓겨나 궁궐 요리사의 조수로 천대받다가 자신의 거만을 깨달은 후에야 왕자를 만나게 된다.

16) 이부영(2000) : ≪자기와 지기실현≫, 한길사, pp101-106.

17)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228-229.

금인 것을 발견한다. '눈앞에 있는 황금을 못 알아보고서 저 고생을 하다니!'막내딸은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금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은 쫓겨남의 고난-심리학적으로는 자아의 시련-과 산 속에서의 가난하고 비천한 삶-심리학적으로는 내향화-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내적 자산이다.

금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귀한 보물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금은 귀하고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태양 또는 왕이나 신을 상징하는 금속이었다.[18] 부귀영화의 상징일 뿐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영원불변하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황금에 부착되어 있다. 어릴 때 필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을 좋아할까 의아해 한 적이 있었다. 금이 반짝이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다. 사람들이 뭔가를 귀하게 여길 때, 심미적인 요소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어떤 내용이 그것에 투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물에 상징이 담길 때 그것은 그 자체를 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금은 여러 번의 제련과정을 통해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는다. 태양처럼 빛나면서 순수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에 깃들어 있을 영혼의 정수, 혹은 영원성에 대한 동경을 투사하게 함으로써 금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질로 여기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연금술사들이 부단한 실험을 통해 금을 얻고자 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연금술에서의 금은 원물질이 인간을 매개로 하여 형상화된 것으로 집단무의식의 의식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연금술사는 물질 속에 속박되어있는 신성한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 육체 속에 속박되어 있는 신성(神性)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다.[19] 융은 연금술사들이 비밀스런 원질료 속에 '얻기 어려운 보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 신을 인식하게 하는 황금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미카엘 마이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백만 번 돌면서 대지 안에 황금을 만들어낸다. 태양은

1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 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93.
19) 이유경(1996) : "서양연금술의 이해," ≪심성연구≫ 11(1, 2), pp21-63.

점차적으로 자기의 상을 대지에 찍어 넣는다. 이것이 황금이다. 태양은 신의 상이고, 심장은 대지 속의 황금처럼 인간 안에 있는 태양의 모상이다. 또한 지상의 신이라고도 부른다. 신은 황금에서 인식된다. 황금에 나타난 신상은 아마도 "황금의 혼anima aurea"일 것이다. 황금의 혼은 평범한 수은에 들어가 수은을 황금으로 변환시킨다.[20]

융의 연금술 연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엘리아데는 중국과 인도의 연금술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금은 불멸의 자유롭고 순수한 정신의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금의 '고귀함'은 '성숙'의 결과이며, 다른 금속들은 '익지 않은' '날것'이기 때문에 '비천'하다. 그런데 자연의 궁극 목적은 광물계의 완성, 그 최후의 '성숙'에 있다. 금속이 금으로 변하는 '자연적'변성은 금속 자체의 운명에 새겨져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연의 완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이 고도로 정신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는 ("금, 그것은 불멸이다"라고 인도의 문헌들은 반복해 말하고 있다) 점 때문에, 연금술적 구제론적 사변에 의해 예고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밝혀지게 된다. 그것은 곧 자연의 형제와도 같은 구제자로서 연금술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개념이다. 연금술사는 자연을 도와 그 궁극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자연의 이상이란 지고의 '성숙', 즉 불멸성과 절대 자유(금은 절대 권위와 자율의 상징이다)에 도달하기까지 그 자손 광물, 동물, 인간을 완성시키는데 있다.[21]

성서 욥기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던져져 있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고난으로 단련 받은 후에 얻어질 새로운 차원의 인격이 정련된 금에 비유되고 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고통과 죽음을 넘어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실행했던 실험을 통해 불멸의 상징인 금을 획득하고자 했던 연금술적 작업은, 고난과 시

20) 융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2004) : 융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p154-157.
21)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재실 역)(2003) :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서울, p 57.

련,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초월적인 영원한 존재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기독교의 이상과 닿아있다고 하겠다.

거무스름하게 그을음이 덮혀 있는 이맛돌이 이상해서 가만히 살펴보던 막내딸이 그을음을 긁어내자 황금이 드러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에는 가만히 살펴보는 것, 즉 관조의 자세와 함께 의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숯구이는 그 이맛돌이 온 산을 뒤져서 겨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은 것이라 했다. 비록 그것이 황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온갖 노력과 공을 들여 귀한 돌을 찾아내고 성실한 작업을 통해 숯을 만들어내는 그는 진지하고 경건한 내적 태도, 여성으로 하여금 전체정신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줄 가능성을 내포한 아니무스라 하겠다. 여기에서 숯가마는 불의 시련을 통해 나무가 숯이 되는 변환의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이란 점에서 연금술의 변환의 용기와도 같이 의미심장한 소재라 할 수 있겠다.

가장 귀한 것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소수만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값진 진주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22] 그저 '제값'을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 주인공은 이점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보잘 것 없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금덩어리임을 알았던 부자 노인은, 영문도 모르면서 아내가 하라는 대로 '따로 값이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그냥 제값을 주시구려'하는 총각의 말에 벽장에 깊이 감춰두었던 돈 꾸러미까지 얹어 주며 금을 산다.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었다.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물건을 보았을 텐데 유독 한 노인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 노인이 없었더라면 이후에 막내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지혜로운 선배나 스승의 도움으로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게 되는 수가 있다.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제자 안에 있는 비범한 능력을 발견해 그것을 북돋워 줌으로써 훌륭한 예술가나 스포츠인으로 성장시킨 교육자들의 이야기가 기사에 오르곤 한다. 한 사람 안에 숨겨진 귀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22) 신약성서(마태복음 13:44-46)에 나오는 구절로 천국에 대한 비유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이런 존재를 만나는 기회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치료실을 찾아온 환자들은 가슴에 까만 숯덩이를 안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한 편, 그들이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과 마음의 괴로움이 단지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장차 금으로 정련되어 나올 원재료임을 알아 봐 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또한 치료자의 역할이 아닐까.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에 인격의 전체로 이끄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궁극적인 치료인 개성화를 향해 환자 스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사람의 외면적, 내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타인들과 좋은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자기실현이야말로 '금,' '얻기 어려운 보배,' '좋은 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열려 있으되 그것을 위해 뜻과 정성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5. 집을 짓다

부자가 된 그들은 오두막을 정리하고 내려와 넓은 땅을 사고 기와집을 커다랗게 지었다. 집안에는 귀한 살림도구와 의복, 먹을거리를 갖추었다. 오두막의 '오두'는 산(山)이라는 뜻을 지닌 고어이고 '막'은 말뚝, 나무의 뜻을 지닌 말로, 오두막은 산집, 산나무를 뜻한다고 한다.[23] 그들은 산 속 깊은 곳에 외따로 있다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이 전개되는 세상으로 내려왔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화 과정이 사뭇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옛날이야기에서 기와집은 부유함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고래등같은 기와집'같은 표현을 하면서 위용과 신비감마저 부여하곤 한다. 이 민담에서는 '번쩍번쩍 빛나는' 집이라고 하여 평범한 삶의 공간 이상의 상징성을 내포시켰다. 집은 안주의 공간, 번영의 상징이면서 근거와 뿌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화적으로 집은 주거이기 이전에 우주의 모상(模像)이며 신이 머무르는 신전이고 한 집단이 꿈꾸고 있는우주상의 표상이었다. 현대의 우리에게 집은 안식과 보호를 위한 주거 공

2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p554.

간일 뿐, 전통적 기능이었던 작업 활동의 공간성이나 가문의 상징성, 거룩한 공간의 함축성 등은 모두 상실되고 말았다.[24)25)] 더욱이 집의 구조가 아파트 형태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성만 강조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공간으로 전락했고 집의 크기가 부의 정도를 대변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겨나 가난한 숯구이 총각의 오두막에서 궂은 일을 하던 막내딸은 이제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일류 목수를 동원해서 지은 빛이 나는 커다란 기와집으로 모든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갖춰진 집이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닫을 때 특별한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는데 '내복, 내 복'–혹은 '찌그럭 지덕일래,' '지복으로'–하는 소리가 나도록 했다고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들리도록–'복남아,' '옥점아', '매화야' 등의 소리로–했다고도 한다. 집은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정신적인 공간으로서 인간 자신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 딸은 집을 지음으로써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이 세계에서 스스로 당당한 존재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26)] 동시에 내면세계에서는 의식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성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새로운 인격의 터전이 견고해지

24)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6) : 앞의 책, pp554–557.

25) 엘리아데는 어떤 공간에 정착하고 거주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했다. "어떤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의 실존적 선택, 즉 그것을 '창조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우주의 선택을 전제하는 행위이다. 이제 이 우주는 항상 신들이 창조하고 거주한 모범적인 우주의 모방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성스러운 신들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이은봉 역, 2000 : ≪성과 속≫, 한길사, p65) "종교적 인간은 '신의 세계'에 깊은 향수를 느끼고 후세의 사원이나 성전이 그러한 것과 같이 신들의 집과 유사한 집을 동경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종교적 향수는 태초에 우주가 창조주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처럼 순수하고 성스러운 우주에 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낸다"(같은 책, pp86–67).

26) 김영희는 이 민담을 여성의 입사기(入社記)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의 지위는 누군가의 딸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남성에 소속된 존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주체로 서기를 원하는 딸은 우선 반드시 '아버지의 집'을 나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두 번째 단계로, 주인공이 신분이 낮은 배우자를 선택하여 자신이 주도권을 획득함으로써, 일반적인 부녀관계를 역전시킨데 이어서 일반적인 부부관계도 역전시켰음을 지적한다. 세 번째 단계로서 '집짓기'는 막내딸의 입사 과정의 정점으로, '대문'은 그녀가 구축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그녀의 세계와 바깥 세계의 접점으로 설정하면서 '이름'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공표하고 사회적 공간을 향해 자신의 '문패'를 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앞의 논문)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집이 여주인공만의 집이 아니라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 나중에는 친정부모까지도 함께 살 수 있는 포용력 큰 가족의 집이라는 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해석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고 내용에 있어서도 알차게 성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숯구이에게 학문을 가르치다

막내딸이 숯구이에게 학문을 가르치자 삼년 만에 숯구이는 번듯한 선비로 탈바꿈했다. 우월한 여성이 남성을 가르쳐 훌륭한 인물로 만든다는 주제는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생각나게 하는 익숙한 주제이다.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으나 또한 구전설화로도 여러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민담적 요소가 많은 이야기이다.[27] 기록이든 민담이든 공주가 온달에게 글과 재주를 가르쳐 훌륭한 장군으로 변화시켰다는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있다. 삼공본풀이에서는, 부모에게 쫓겨난 감은장아기가 정처 없이 헤매다가 노부부와 세 아들이 사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찾아간다. 거기서 막내아들 작은 마퉁이와 혼인하고, "작은 마퉁이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갓망건을 씌워 놓으니 절세미남"이 되어 두 형이 보고 절을 올릴 정도로 변모되었다.[28] 마를 캐며 가난한 삶을 이어가던 마퉁이는 감은장아기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번듯한 남자가 되었고 이어서 금은도 발견하여 거부가 된다. 무왕설화의 서동 역시 마를 캐던 사람으로, 선화공주를 통해서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금을 발견하였고 결국 왕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여성이 열등한 남성과-세속적인 눈으로 보기에-결혼하여 그를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주제에 대해, 여성이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전통적인 부부간의 역학관계를 뒤집고 자신의 주체성을 공고히 해가는 현상으로 보는 여성주의 시각도[29] 이해할 만은 하다. 그같은 관점에서는 발전이란 갈등과 대립의 구조에서 기존의 세력을 극복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강력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에게 도전

27) 정규식은<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달설화를 요약 기술해 놓았다. 1) 고구려 평강왕(559-590)때 바보 온달이라는 거지가 있었다. 2) 평강왕은 울보인 딸을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한다. 3) 성장한 공주는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하자 공주는 왕은 식언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온달에게 시집가려한다. 4) 화가 난 왕은 공주를 내쫓는다. 5) 공주는 팔찌 수 십개를 가지고 온달을 찾아간다. 6) 온달 모자는 공주를 거부하지만 공주의 설득으로 함께 산다. 7) 공주는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변화시킨다. 8) 온달은 사냥대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받는다. 9) 온달이 후주의 군사와 싸워 공을 세운다. 10) 온달은 신라와의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다. 11) 공주는 죽은 온달을 위로하여 장사 지낸다(2002 ≪동남어문집≫ 14, pp172-177.)

28) 장주근(1998) : 앞의 책, p118.

했던 딸이라면 굳이 미천한 계급이 아닌 동등한 신분의 남편에게도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의미를 두어야 할 점은 셋째 딸은 여성으로서 남성적인 면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신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녀가 당차게 아버지 집 대문을 열어 제치고 나올 만큼 자존심 강하고 드높은 의식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식의 눈으로 볼 때는 낮고 거치른, 미발달된 측면의 성격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온달은 마음씨는 순수하였으나 생긴 것이 우습고 다 떨어진 의복과 신발로 돌아다녀 바보 온달이라 불리웠다. 숯구이나 마퉁이는 세련된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자연의 땅에서 나무를 베고 불을 지피고 흙을 파서 마를 캐는 등 거친 노동을 하며 사는 남자들이다. 머리보다는 근육질의 신체 혹은 착한 마음이라는 성정이, 정신보다는 본능이 활발하게 살아 있는 세계다. 여성이 이런 차원의 아니무스를 만나 진지하게 대면할 때 번듯한 선비로, 훌륭한 장군으로, 왕으로, 아니무스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직 자연상태에 묻혀있는, 즉 무의식상태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의 의식화를 통한 분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 민담에도 바보 영웅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그림 동화집에 나오는 <황금 거위>, <삼형제>, <세 개의 깃털>,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등에서 모두 얼간이라고 불리는 막내가 공주를 얻고 왕국을 이어받는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왜 어리석고 놀림 받는 존재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관을 씌우는 이야기를 만들까. 집단에서 높이 평가하는 가치들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눈치 보며, 이익을 따라 사는 현실에 대해, 천진난만하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바보의 모습이 그 보상으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집단의식이 에로스와의 접촉을 상실하고 경직된 지배원리에 갇혀 있을 때, 바보는 여성적인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태도로서 영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Von Franz는 설명한다.[30]

29) 정규식은 서동, 온달, '내 복에 산다' 설화를 여성의 통과의례라는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평강공주는 온달과 통합된 후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영역이 애초에 자신이 분리시킨 동일한 영역, 동일한 지위로의 회귀였던데 비해, 선화공주는 서동과 결합하여 자신이 속했던 신라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백제의 왕이라는 영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여성주의 설화로서 한층 발전된 면을 보였으며, 나아가 '내 복에 산다'에서는 아버지의 영역이 몰락하고 셋째 딸과 숯구이가 구축한 새로운 영역에서 통합됨으로써 가장 발전된 여성 중심적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정규식, 앞의 논문).

이부영은 <우부현처설화(愚夫賢妻說話)>를 가부장사회의 남존여비 관념을 대상하는 설화로 보면서 여성의 건전한 아니무스가 남성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31] 이 이야기의 숯구이는 지적인 면에서는 바보라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우부현처류의 이야기에 분류할 수 있겠으나 불을 일으키는 숯을 굽는 자, 자연속에서 작업하는 자로서 샤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샤만은 불을 다루는 자, 항상 대장장이와 동일시되어 왔다.[32]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여성이 어리석은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전체 인격을 실현시키는 주제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나타나는지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화시키기에는 필자의 민담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많은 민담에서 남성 영웅은 마법에 걸린 공주 혹은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고 왕국을 얻는 데 비해, <내 복에 산다>에서 보듯이 여성 영웅은 열등한 남편을 훌륭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가족이나 집단을 구하는 구조를 보여 자기실현에 있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통합 과정의 차이에 대한 고찰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7. 거지 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만나다

부모님 소식이 궁금하여 알아보던 중 쫄딱 망해 거지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셋째 딸은 나라 안의 모든 거지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잔치를 연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여는 주제는 심청전을 떠올리게 한다. 본 민담에는 부모가 맹인이 된다는 내용은 없으나, 삼공본풀이의 마지막은 장님이 된 부모님께 약주 잔을 드리며 "내 감은장 아기우다. 내 술 한잔 들읍서" 하는 말에 깜짝 놀라 받아 든 술잔을 떨어뜨리는 순간 눈이 밝아진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심청전에서와 유사한 장면이다. 여러 지방의 유화에서 잔치를 벌여 아버지를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대문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 동냥하러 다니던 아버지를 만난다고 되어 있다. 혹 친정이 망하고 거지가 되어 자기에게 올 것임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 전승도 있어서 신화인 삼공본풀이의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을 구하는 딸의 주제는 버림받

30)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64.
31) 이부영(2000) : 앞의 책, p227.
32)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재실 역) (2003) :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서울, pp81-88.

아 시련을 겪은 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약수를 찾아오는 바리데기 이야기와의 유사성을 생각하게 한다.

잔치는 민담에서 흔히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이다. 심 봉사가 눈을 뜨는 것도, 신데렐라가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림으로써 왕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마법에 걸린 공주의 동물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도 모두 잔치에서이다. 영웅이 험난한 시험을 이기고 모험에서 돌아오면 바로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린다. 성서에서도 잔치는 자주 등장하는 상징이다. 예수가 첫 번 째 기적–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을 베푼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으며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아 큰 잔치를 열며 기뻐한다. 천국은 '잔치자리' 그 자체에 비유되곤 한다. 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 자리이며 헤어졌던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는 자리이고 나아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이다. 융합의 공간이며 변환의 시간이다. 세째딸은 큰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온전한 자기가 되는 여행을 완결한다.

민담은 주인공이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를 함께 모시고 두 언니네 살림까지 돌보면서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아버지로의 영토로부터 축출 당했으나 배우자를 만나고 보물을 발견하여 자신의 새 영토를 구축한 딸은 이제 자기를 쫓아낸 아버지와 친정식구들을 돌봄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던 이전의 세계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회복을 이룬다. 부성 콤플렉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아니무스의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인격을 실현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 여성의 자기실현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민담을 읽고 분석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 흥미롭다. 아버지를 받아들여 편안히 모신 것에 대해 진정한 효의 실천이라고 해석한 견해가 있는가하면,[33] 아버지의 피보호자였던 딸이 아버지의 보호자로 지위가 역전되며 딸의 '부친 살해'가 이뤄진다는 다소 '투쟁적인' 해석도 있다.[34] 민담을 읽으면서 개인의 입장이나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감흥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담을 무의식적 투사를 담고 있는 보편적 인간 정신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집단적 지배적 의식이 어떤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전체정신으

33) 곽정식(1999) : 앞의 논문, p11.
34) 김영희(2007) : 앞의 논문, pp420–424.

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무의식에 내재하는 개성화의 원형들, 그리고 개성화에 이바지하는 여성원형상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민담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민담의 결말이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영역 가운데 한 편의 극복이나 배제가 아닌 변증법적 통합을 이룬다는 점이다.

8. '내 복에 산다'에서 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민담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구복설화, 차복설화, 발복설화 등 복이 화두가 되는 설화들이 있고 본 민담에서도 '너는 누구 복에 사냐'는 질문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다. 복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좋은 운수 등이지만, 복을 행운, 운수, 행복 등의 용어로 한정하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민담을 보면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을 타야겠다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서천서역국을 향해 하염없이 가는 머슴의 이야기나, 남의 복을 빌려서라도 복을 받아야겠다고 옥황상제에게 사정하는 차복이 이야기에서, 복은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주어진 것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차원과의 관련성 속에 있는 것으로 민담 전승자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본다. <내 복에 산다>의 여러 자료에서 복은 셋째 딸의 것이므로 그녀가 집을 나간 후 친정이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구술되어 있어 복은 타고난 것, 이미 결정된 것이란 관념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담의 주인공들은 그저 앉아서 복이 굴러들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 운명론적인 안이함에 머무르는 대신 현실적인 과제에도 충실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실행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차원을 인정하는 한편 거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함을 믿는 적극적인 태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들은 좋은 반려자를 얻고 풍성한 재물을 얻지만 자기 혼자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고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다. 이는 무의식의 의도를 알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 성찰하면서 의식화의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기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자기실현 과정의 유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민담의 막내딸은 쫓겨남으로써 오히려 복을 완성한다. 가난한 나무꾼이 큰 부자가 되고 바보가 왕국을 얻는다. 이스라엘의 옛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노래했다.[35] 노자는 복에 대해서 "화여 복이 그에 의지하며, 복이여 화가 엎드려 있구나.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라고 했다.[36] 인간의 삶 속에는 밝음과 어둠, 복과 화가 공존한다. 상황이나 조건이 복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복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어,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가다보면 자신의 고유한 복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맺 음 말

그 언젠지 모르는 옛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막내딸이 '내 복에 산다'고 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승되어 온 어떤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개인성에 대한 자각이나 여성의 권리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담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 온 것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향한 원형적 작용과 닿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맹랑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부성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으로 나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로서 흥미를 느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인공은 부성콤플렉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부성에 의지한 일 없던, 본래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인습적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는 존재, 바리데기나 심 청 등 여성 영웅원형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의 민담해석은 민담을 한 개인이나 사회의 사건으로 보기보다 무의식의 원형적 구조와 기능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민담은 한편으로는 경직된 집단적 의식이 무의식의 작용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통합되는 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페르조나로부터 배척받은 여성성 –감성– 과 세속의 눈으로 가장 열등한 것과의 결합, '낮은'무의식적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초적 성인과정(initiation process)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로

35) 구약성서 시편 119 : 71.
36) 왕 필(임채우 옮김)(2006) :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서울, p248.

해석된다.

Von Franz는 민담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고백이라고 했다. 해석자는 특정 시대와 사회에 속한 존재이고 또한 고유한 정신세계와 체험을 가진 하나의 개인이므로 해석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개인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신화의 해석은 심리학의 언어로 신화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유효했던 하나의 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해석 작업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37] 다른 사람들 혹은 미래의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읽고 느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일간지에 실린 기사에서 어느 서양 고전 철학자는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전이 갖는 탁월함이란 해석의 다양성으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시대와 역사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읽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충전하고 발산하게 하는 민담이야말로 진정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어린 딸에게 지네장터설화를 들려주었더니 너댓살 되었던 아이는 화를 내면서 "사람들은 나빠! 돈을 모아서 칼 사고 힘을 합쳐서 지네를 물리쳐야지 어린 여자애를 괴물한테 바치면 어떡해!"라고 했다. 이번에 민담 해석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그 애의 반응이 궁금했다. 다 읽고 난 아이는 오른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나도 내 복에 산다!" 외치듯 한마디 했다. 아마도 민담이 마음 한 부분을 고양시켰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곧 "그런데 숯구이한테 갔다가 금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스런 말투다. 이제 좀 자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나보다. 어떤 식으로 느껴지든 하나의 민담에 대한 각 개인의 감정 반응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민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체험이다. 꿈을 해석할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꿈 꾼이에게 의미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듯이 민담을 읽고 해석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체험, 그것이 민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민담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후련해졌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거운 마음이었다. 이 글은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 체계에서 나고 자란 한 여성으로서의 고백이다. 딸이 성장한 다음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지 궁금하다.

37)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15, p45.

민담 안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풍부하게 길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계의 유화와 비교하고 개별적인 원형상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확충 작업이 필요하지만 필자의 역량의 한계로 그것은 미래의 작업으로 남겨두는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곽정식(1999) :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에 나타난 여성의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인문과학 논총≫ 2

김석배(1982) :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연구", ≪문학과 언어≫ 3

김열규 옮김(1999) : ≪그림형제 동화전집 I≫, 현대지성사, 경기

_____(1999) : ≪그림형제 동화전집 II≫, 현대지성사, 경기

김영희 (2007) :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 ≪온지논총≫ 18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2003),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서울

_____(**이은봉 역**)(2000), ≪성과 속≫, 한길사, 서울

신동흔 엮음 (2003) : ≪ 세계민담전집 01≫, 한국편, 황금가지, 서울

왕 필(임채우 옮김) (2006) : ≪왕필 노자주≫, 한길사, 서울

융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융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 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_____(2000) : ≪자기와 지기실현≫, 한길사, 경기

이유경(1996) : "서양연금술의 이해", ≪심성연구≫, 11(1, 2) 통권 15호

장주근(1998) : ≪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정규식(2002) : "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 ≪동남어문집≫ 제1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1989)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현승환(1998) : "내 복에 산다계 설화의 연구 성과와 과제", ≪설화문학연구≫, 단국대학 교 출판부, 서울

황인덕(1988) :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 구≫ 제18집

Jung CG (1970) : C.W. (4), Freud and Psychoanalysis,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_____(1984) : Dream Analysis, Princeton Univ. Press

Stith Thompson (1995) : Motif Index of Folk Literature, Vol 1., Indian Univ. Press

Von Franz ML (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ala

Von Franz ML, Hillman James(2006) : Lectures on Jung's Typology, Spring Pub. Inc, N.Y.

Shim-Sŏng Yŏn-Gu 2010, 25 : 2

〈ABSTRACT〉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a Korean Fairy Tale "I live on my Fortune"

–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

Young Sun Pahk*

A Korean fairy tale, "I live on my fortune" is discussed and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Analytical psychology understands fairy tales are stories in which the workings of archetypes of unconsciousness are represented symbolically. Therefore they are intended to achieve psychic wholeness compensating collective consciousness. The fairy tale is found in almost every region of Korea. There are several parallel stories that share similar motifs, such as Samgongbonpoori, a mythological story and a tale on the king Mooh. The father in the story asked his three daughters whose fortune they lived on. The youngest was expelled by her father for she answered, "I live on my own fortune." Then she came into a humble cottage in the mountain marrying a poor charcoal maker and she found gold there. She became rich, made the charcoal maker a decent learned man and seeked for and took care of her parents who had become beggars. This fairy tale is interpreted as a story about individuation process of a woman who integrated 'inferior' aspects and unconscious animus through actively accepting the suffering from being expelled and commitment to the unconscious world, and also about how rigid collective psyche, under patriarchal system, changes toward wholeness through the workings of the unconscious.

KEY WORDS : Fairy tale · Analytical psychology · "I live on my fortune."

*KEB Clinic